KIRI
08/08/18

해외보험동향

◈ 북미

- AON 컨설팅, 2009년 미국 의료비용 증가율 10% 전망
- 미국 AIG, 실적 악화로 인한 구조 조정 임박

◈ 유럽

- Lloyd's, 본격적인 유럽지역 공략에 나서다
- 건설전문 보험업에 뛰어든 영국 Endurance

◈ 일본

- 토교해상홀딩스, 말레이시아 손해보험회사 인수
- 대형 6개 손보사, 6월말 영업실적 고유가로 이익 감소

◈ 중국

- 중국생명, 농촌 소액 인보험시장 시범운영
- 중국에서 돈세탁 수단으로 이용되는 보험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AON 컨설팅, 2009년 미국 의료비용 증가율 10% 전망

o AON 컨설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9년 미국 보건의료비용 증가율은 1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난 6년간 조사한 수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문가들은 이것이 직원 건강관리(employee wellness)프로그램, 질병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의료비용 감소 노력의 결과라고 지적함.
- 연구를 진행한 AON의 빌 섀런(Bill Sharon)은 지난 3~6년 동안 고용주들이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해 왔으며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함.
- 설문은 애트나(Aetna), 시그나(Cigna) 등을 포함한 70여 건강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균적으로 10.6%의 의료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는 결과를 얻어냄.

o 의료비용은 환자의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고령인구의 니즈, 처방약품 및 의료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AON은 밝힘.

- 미국건강보험협회의 로버트 져킬바흐(Robert Zirkelbach)는 의료 서비스의 과용 및 오용을 비롯한 통제불능의 의료배상(medical liability)시스템 등도 의료비용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함.
- 그는 또한 건강보험사들이 의료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질병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저렴한 개량 신약(Generic drug) 사용을 권장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힘.
- AON은 2002년부터 의료비용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해 왔으나 감소 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는 의료비용 감소 노력의 효과가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함.

(Associated Press, 8/12)

□ 미국 AIG, 실적 악화로 인한 구조 조정 임박

o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모기지와 관련하여 53억 6천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던 AIG의 CEO인 로버트 윌럼스테드(Robert Willumstad)는 조만간 구조 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9월 25일 있을 투자자 미팅에서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계획에는 직원 감원 및 일부 사업 부문 철수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함.

o 관련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AIG가 너무 비대해져 왔으며 핵심 사업인 보험사업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 한 애널리스트는 AIG가 어느 누구도 그룹전체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져 왔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면서, AIG가 앞으로 모기지 연계자산과 그룹 내 모기지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개런티(United Guaranty)와 같은 사업부문을 처분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함.
-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AIG가 전형적인 보험사임에도 많은 위험자산에 투자해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자산을 다각화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S&P 또한 AIG가 그룹 내 핵심 부문인 보험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o AIG는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부문 일부를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2/4분기 영업이익이 85% 증가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는 항공기 리스사업부문, ILFC(International Lease Finance Corp)는 매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o 한편, 익명을 요구한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AIG가 직원들에게 인력 감축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는 악화되고 있다고 밝힘.

(Reuters, 8/7)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Lloyd's, 본격적인 유럽지역 공략에 나서다

o 세계 최대 보험조합 중 하나인 로이드(Lloyd's)의 유럽지부장 엔리코 버타냐(Enrico Bertagna)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로이드의 현재 모습과 유럽시장 확대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힘.

- 로이드는 유럽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보험시장인 동시에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손보시장의 1/3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써 유럽 전역에 새로운 인력과 지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함.
- 이미 아일랜드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들에 새로운 지역담당자를 배치했으며, 올해 초에는 EU 가입 후 신흥 금융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폴란드에도 새로운 지역담당자를 두어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 내년에는 헝가리, 루마니아, 터키 등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o 이러한 유럽진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브로커(broker)와 보험중개사(intermediary)와의 관계를 얼마나 긴밀하게 가져가느냐에 좌우된다고 버타냐 지부장은 강조함.

- 세계 유수의 보험사들이 밀집해 있는 유럽지역에서 대형 보험사들은 다른 보험판매사를 인수하거나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등의 판매채널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
- 고객니즈에 맞는 보다 세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로이드는 보험판매사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한편, 보험중개사와 보험판매사들의 오랜 파트너로서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전문 언더라이터들이 있는 기관으로 로이드가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버타냐 지부장은 피력함.

(Insurance Journal, 8/8)

□ 건설전문 보험업에 뛰어든 영국 Endurance

o 세계적인 손해보험 및 재보험 전문회사(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and reinsurance)인 영국의 인듀어런스(Endurance)는 최근 건설 프로젝트 수행 시 상당한 범위 수준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국전문 보험중개사 건설보험팀을 발족함.

-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영국 민자유치사업, 자산 개발자(property developers), 전문 건설업자, 발전관련 종사자 및 발전시설 등과 같이 건설과 엔지니어 부문에 종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건설과 관계되는 모든 위험들을 특화하여 보상해 주는 것이 이번에 새로 발족한 보험팀의 임무임.
- 이 건설 보험팀은 영국에 사무소를 두면서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 및 청구, 위험관리 등을 유기적으로 처리하여 신속성을 확보할 예정임.
- 보험중개사와 해당 고객들은 인듀어런스의 새로운 팀을 통해서 건설을 포함한 기계고장, 기업휴지(Business Interruption), 작업장 내의 사망 위험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o 인듀어런스는 이번 건설 전문보험 판매가 보다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인듀어런스 보험사업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음.

- 전문보험 시장에서 건설보험과 같은 다양한 특화 보험상품은 성장과 안정 모두를 추구하려는 인듀어런스의 전략이며, 이러한 다양성은 현재 글로벌 보험시장에서의 핵심 키워드임.
- 인듀어런스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 제고와 경험 많은 전문보험 전담팀 성장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특히 글로벌 수준의 금융지원과 뛰어난 언더라이팅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상품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인듀어런스의 명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이유라고 전략개발팀장 존 휴튼(Jon Houghton)은 강조함.

(Insurance Times, 8/11)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토교해상홀딩스, 말레이시아 손해보험회사 인수

o 토교해상니치도(東京海上日動)화재보험의 지주회사인 토교해상홀딩스(HD)는 15일 토교해상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토쿄마린인슈어런스말레이시아(TMIM)가 말레이시아 보험회사 「팡로바르인슈어런스(이하 PGI)」를 인수하기로 PGI와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토교해상이 PGI의 자산 및 부채 등을 포함하여 PGI를 인수할 금액은 1500만 링깃(약 5억엔)으로 12월까지 사업인수를 완료할 계획임.
- 토교해상홀딩스는 말레이시아가 아시아 지역의 중요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말레이시아 보험회사의 인수를 통해 인도차이나 지역의 사업 전개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2007년 말레이시아 TMIM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4억 6800만 링깃(약 155억엔)이고, 시장점유율(MS)은 4.5%로 말레이시아 손해보험회사 32개 중 6위를 차지함.
- TMIM의 PGI의 인수로 인하여 TMIM의 MS는 5.4%가 되어 5위로 상승하였으며 지점망은 기존의 20개에서 31개로 증가하여 사업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됨.

o 말레이시아는 2007년의 GDP가 전년대비 6.3%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보험시장 규모도 확대될 전망임.

- 토교해상홀딩스는 말레이시아의 대형 은행그룹과 합작으로 2006년부터 타카풀(이슬람공제) 회사인 「혼롤 토교해상 타카훌」을 설립하여 영업하고 있음.
- 토교해상홀딩스는 「이번 말레이시아 손해보험회상의 인수를 통해 높은 시장 성장이 전망되는 말레이시아에서 보험영업을 강화할 계획임.

(FujiSankei Busines, 8/16)

□ 대형 6개 손보사, 6월말 영업실적 고유가로 이익 감소

o 일본에서 영업 중인 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의 2008년 6월말 경영실적 결산이 8월 11일 집계됨.

-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보험종목인 자동차보험의 판매 침체 등으로 손해보험영업이 감소하였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을 받아 자산운용 환경이 악화되어 미츠이스미토모해상그룹홀딩스를 제외한 5사가 전년 동기대비 이익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토교해상은 보험금 부당 미지급 문제의 재발 방지에 대비한 시스템 투자비용 등이 크게 늘어나 40%를 넘는 이익 감소가 발생하였고, 손해보험재팬도 자산운용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60% 넘게 감소함.
- 이해 반해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이자배당금 수입의 증가 등 자산운용 수익이 증가하였고, 경상수익에서는 토교해상만이 영국의 보험회사를 인수해 연결결산 대상이 늘어나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증가함.

o 일반 기업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입보험료 부분에서는 6개 대형 손해보험사 모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은 신차판매 대수의 침체로 인한 신계약 정체로 인하여 감소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금융청의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가 7월에 집중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많았던 것으로 일본업계는 파악하고 있음.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하여 토교해상이 133억엔, 아이오이손해보험이 75억엔의 평가손실을 각각 계상함.

(FujiSankei Busines, 8/12)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생명, 농촌 소액 인보험시장 시범운영

o 중국 보감위는 최근 농촌 소액보험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중국생명(中國人壽)을 시범운영 회사로 지정하고 9개 상품에 대한 판매허가를 내줌.

- 금년 6월 <농촌 소액 인보험 시범운영방안>이 발표된 후 8개 보험회사가 시범운영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심사결과 중국생명이 최종 결정됨.
- 중국생명은 8.12(화) 공식발표를 통해 중국에서 최초로 농촌 소액 인보험 시장이 개막되었음을 대외에 알림.
- 중국생명이 출시한 소액보험상품은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 교통사고상해보험 등 개인보험 4종, 단체보험 3종, 소액대출보험 2종 등 총 9개로 이루어짐.

o 이번에 중국생명이 출시한 상품은 농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음.

- 농민들은 연간 10~100위안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질병, 사망, 장애 발생시 최고 1만~5만 위안의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
- 중국생명은 8월 중순부터 소득수준이 낮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판매에 돌입하고, 반응이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 중국생명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된 소액보험상품이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약 20% 정도 저렴하게 책정됐다고 전하면서 농촌주민들의 사고발생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료를 낮추게 된 데에는 소액보험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저소득층 보호가 우선이라는 회사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 중국생명은 소액보험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농촌지역 보험시장을 선점하고 여타 보험상품과 연계판매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중국증권보, 8/13)

□ 중국에서 돈세탁 수단으로 이용되는 보험

o 중국 보감위와 감독당국은 음지에서 형성된 불법자금이 양지로 흘러들어 가는데 보험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돈세탁을 하려는 사람들은 위험보장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원을 노출시키지 않고 탈세, 현금확보, 국유자산포탈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함.
- 중국에서 보험을 이용한 돈세탁은 주로 1)단체보험을 개인보험으로 변경, 2)장기보험을 단기보험으로 변경, 3)일시납 가입 후 즉시 수령, 4)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해약, 5)중개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등의 방법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짐.

o 그러나 보험 감독당국은 실제로 불법자금이 자신들의 감시를 피해 유통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보험가입자 인적사항과 그들이 가입하는 보험상품을 통해 돈세탁 혐의를 찾아내곤 함.
- 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연락처와 거주지를 자주 변경하고 가입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자금은닉처로 알려져 있는 국가나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음.
- 또한 그들은 거액을 맡기면서도 보험상품의 보장이나 투자이익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대신 보험회사의 회계심사, 급부, 해약 등에는 이상할 정도로 파고들며 강한 집착을 보임.
- 그리고 가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약관조항에도 쉽게 동의하며, 여러 회사에 분산가입하고 수익자를 자주 변경하는 모습을 보임.

(중국경제시보, 8/13)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8.8(금)	08.8.15(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70	5.85	0.15
	美 10년국채	4.03	3.93	3.84	-0.09
	英 10년국채	4.51	4.68	4.57	-0.11
	日 10년국채	1.51	1.47	1.47	0.00
주가	韓 KOSPI	1,897.13	1,568.72	1,572.19	0.2%
	韓 KOSDAQ	704.23	525.54	522.81	-0.5%
	美 DJIA	13,264.82	11,734.32	11,659.90	-0.6%
	美 Nasdaq	2,652.28	2,414.10	2,452.52	1.6%
	英 FTSE100	6,456.90	5,489.20	5,454.80	-0.6%
	獨 DAX30	8,067.32	6,561.65	6,446.02	-1.8%
	佛 CAC40	5,614.08	4,491.85	4,453.62	-0.9%
	日 Nikkei225	15,307.78	13,168.41	13,019.40	-1.1%
	中 상해종합	5,261.56	2,605.71	2,450.61	-6.0%
	대만 가권	8,506.28	7,209.04	7,196.50	-0.2%
	홍콩 항셍	27,812.65	21,885.21	21,160.60	-3.3%
환율	원/달러	938.2	1,024.10	1,039.80	15.70
	원/100엔	833.33	928.17	941.00	12.83
	엔/달러	112.58	110.16	110.47	0.31
	달러/유로	1.47	1.50	1.47	-0.03
	위안/달러	7.30	6.85	6.87	0.01

주: 15일(금)은 휴일(광복절)인 관계로 韓 국고채(3년), 韓 KOSPI, 韓 KOSDAQ는 14일 기준임.